광주 수완지구 '과밀학군' 전락

초·중·고 17개교 지으려다 5곳 취소…입주세대 급증에 '비상'

특별실까지 교실 전환 수업해야 할 판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광주 수완지구내 학교들이 아파트 입주세대 급증으로 늘어난 학생을 감당하지 못해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명품신도시'를 표방하고 나선 수완지구가 학생수요 예측 잘못으로 '과밀학군'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7개교에서 12개교로 축소=9일 광주시교육청과 유재신 시의원(민주·광산구2) 등에 따르면 수완지구내 학교는 초 4, 중 2, 고 2개교 등 모두 8곳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01년 인구 8만여명 규모의 수완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초 9, 중 5, 고 3개교 등 17개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초 6, 중 3, 고 3개교로 축소했다. 이후 입주율 저조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1개교(가칭 수완 8초)의 설립이 유보됐으며, 3개교(초 1, 중1, 고1)는 2011년 이후에 개교될 예정이다.

◇인구유입 급증 과밀교실 양산=수완지구내 아파트 분양률은 9일 현재 95%(9천433세대)를 보였으며, 임대 4단지 2천586세대도 모두 임대됐다. 수완지구의 실제 입주세대는 1만585세대(3만3천531명)로, 총 입주예상 세대인 2만4천756세대(7만4천268명)의 43%가 입주한 상태다.

취학아동도 크게 증가해 올해 수완지구내 초등학교 4개교의 입학 예정 아동수는 모두 829명으로, 지난해 530명보다 299명이나 늘어났다.

이 같은 인구급증으로 2009년 기준 수완지구내 4개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8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보다 14명이나 많고, 중학교 2개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42명으로 전국 평균(32명)을 훨씬 넘어섰다. 고교 2곳도 각 40명(전국 평균 33명)에 이른다. 광주지역 평균(초 30.7명, 중 38.6명, 고 37.7명)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학교 특별실 없어지고, 주민은 통학버스 운영=30학급에 1천86명이 재학중인 수완초교의 경우 졸업생은 192명인데 반해 2010학년도 입학생은 210명으로 늘었다.

학급당 학생수가 36명인 수완초교는 올해 시 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1명으로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최소 4개 이상의 교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미술실과 음악실, 어학실, 실과실 등의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습환경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미술수업 등은 일반교실에서 하더라도 요리만들기 등 불을 사용하는 실과실은 대처할 공간이 없다"며 난감해 했다.

설립이 유보된 가칭 '수완 8초교' 인근 W아파트 주민 등도 학교의 설립 계획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와의 직선거리가 500m~1km에 이르는 데다, 통학로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현장과 차도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중이다.

◇신도시 규모 맞게 학교 추가 신설 주장=지역주민들은 "수완지구의 예상 세대수는 2만5천여세대로, 인구규모에 맞게 학교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밀려드는 설 선물 즐거운 비명 설을 앞두고 9일 오전 광주시 남구 옛 보훈병원 앞마당에서 서광주우체국 직원들이 밀려드는 설 선물을 배달 목적지별로 분류해 옮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 체포영장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은 9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화순출신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은 오 사무총장 외에 A씨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민노당 관계자가 2~3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상습 교통사고 자해공갈 동부경찰, 30대 영장

광주동부경찰은 9일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수백만원을 뜯어낸 김모(37·영암군 영암읍)씨에 대해 상습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2월 17일 경기도 부천시 한 골목에서 강모(27)씨가 몰던 승용차에 달려들어 부딪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3년여간 광주·전남 등 전국을 돌며 19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좁은 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만을 골라 일부러 부딪친 뒤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매입임대 분양전환 강요 피해

세입자 510명 집단 고소

광주지역 대형 매입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강요로 피해를 당한 아파트 세입자 510명이 해당 임대사업자를 집단으로 고소했다.

광주 'M주택 전세입자 피해자들의 모임'은 9일 임대사업자 문모(53)씨와 문씨를 도운 부동산중개업자 2명 등 3명을 사기와 중개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피해자 모임은 "아파트 862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던 문씨가 지난해 말 잠적한 뒤 일방적으로 분양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며 "문씨의 요구를 따를 경우 1가구당 1천500만~2천200만원의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또 "문씨의 요구대로 300여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받은 피해자 100여명은 금융기관의 빚까지 떠안는 바람에 1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세입자들의 총 피해가 130억원에 달하는 만큼 유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임은 "이번 사건은 사업자와 중개업자가 결탁해 은행권의 대출금으로 임대아파트를 피라미드 방식으로 늘린 신종 부동산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광주 828가구, 경기 안산 33가구 등 아파트와 원룸 등 828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 초 "집을 분양전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안내장을 보낸 뒤 잠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

女가수 쇼핑몰 '짝퉁' 옷 판매

외국 유명상표 도용 213명 무더기 입건

서울 혜화경찰은 9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의류 등을 대거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카콜라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 135점을 팔아 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B(여)와 방송인 C(여)씨 혐의 역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캘빈클라인, 이브생로랑 등의 상표가 박힌 짝퉁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팔아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짝퉁 의류 등을 구입해 쇼핑몰에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2명 입건

서울 용산경찰은 9일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던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 김모(62)씨와 추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7시께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사법부, 법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차량이 북한남삼거리에서 유턴하는 것을 보고 육교 위에서 이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계란 6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계란 4개는 차량에 떨어졌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당 등 4대 보수단체 관계자 50여명은 사건 당시 대법원장 공관 근처에서 'PD수첩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경찰은 김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송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나원참 〈8026〉 김종두

실종 초등생 4일만에 찾아

광주의 한 초등학생이 실종된 지 나흘 만인 9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피아노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됐던 고모(8·광주 Y초교 1년)군이 9일 오전 10시40분께 서구 풍암동 W아파트 놀이터에서 주민 한모(여·35)씨에 의해 발견됐다.

故 최진실씨 자녀 1억원 배상해야

쌍나팔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대경)는 9일 건설사인 S사가 고(故) 최진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소송을 이어받은 두 자녀가 옛 소속사와 연대해 S사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최씨가 멍든 얼굴 등을 촬영하게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의 정도를 넘은 것이며, 이 때문에 가정불화 사실이 공개돼 이미지가 손상됐고 구매 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판시.

○…S사는 2004년 3월 최씨에게 모델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최씨가 S사의 이미지를 해치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는데, 2004년 8월 최씨가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붓고 멍든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자 30억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 /연합뉴스

공무원 합격생들은 진실을 안다! 왜 서울고시학원인가를!
→ 2009년 광주, 전남시직(국가직 포함) 행정직 151명 모집에 105명 합격, 70%합격점유율
→ 2008년 광주시 교육행정직 60명 모집에 55명 합격, 92%합격점유율
→ 2009년 광주, 전남 소방직 132명 모집에 75명 합격, 57%합격점유율
2010년 소방직 3,215명 대규모 채용
7급공무원 팩수달 이론반 첫진도 개강 ▶ 2월 1일
7급공무원 문제풀이반 개강 ▶ 2월 1일
서울고시학원 전남대 후문앞 514-4560, kjgosi.co.kr
MDPass 학원

경찰합격의 새로운대안(seoulcop.co.kr)
서울경찰전문학원
최고의 합격률! 최상의 학습환경!
2010년 경찰시험일정
251-7959 (광주 북구청 건너편)